

서울대학교 医療共濟事業의 分析

Analysis on Health Cooperative Program for Employee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趙 和 淑

(指導 許 程 教授)

I. 緒 論

最近 医療酬價의 昂등으로 醫療費負擔이 急增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醫療費負擔의 急增은 醫療需要者들에게 상당히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그래서 近來에 이런 위협을 除어주기 위해서 醫療保險이 出現하게 되었다. 이러한 醫療保險의 出現은 社会的 要求에 副應하는 당연한 時代的 歸結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傾向에 따라서 各 職場에서는 職員의 厚生福祉 向上을 위한 한가지 方法으로 醫療 保險組合을 設立하여 運營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形態의 第1種 醫療保險뿐만아니라 地域社会 中心의 第2種 醫療保險까지 一般化되어 더욱 擴大될 것으로 展望된다.

이에 앞서 서울대학교에선 이미 1968年度부터 職員 醫療保險組合을 設立 運營하여 오던 中 1976年 6月 1日을 기하여 教職員 醫療共濟會로 改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이를 利用한 사람은 總 6,500名에 이르렀고, 여기에서 給与된 總額도 무려 8,700萬원에 육박하게 되었다. 그리고 利用하는 사람의 數나 金額도 근래 더욱 增加하는 傾向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점차 그 役割이 커지고 있는 서울대학교 教職員 醫療供濟會에 對하여 最近 5年 동안의 經營狀態와 診療実績 즉 給与実績을 分析함으로써 앞

으로의 共濟會의 運營에 合理的인 方向을 提示할 수 있도록 하는데 本 論文의 目的이 있다.

2. 經營狀態 分析

最近 5年間的 歲出入 現況을 표1에서 보면 1973年度에 歲入이 753萬원, 歲出이 720萬원, 殘額이 33萬원에 불과하던 것이 1977年度에는 3,961萬원의 歲入에 歲出은 3,760萬원으로 殘額은 201萬원에 달하여 歲出및 歲入에서 約 5倍 以上の 伸張을 보였다. 여기서 特히 殘額은 伸張率이 더욱 크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곧 積立金으로 넘어가는 傾向을 볼 수 있다. 여하튼 5年동안 運營規模는 엄청나게 커졌음을 볼 수 있다.

우선 歲入 部門을 보면 그 內訳은 주로 會費와 學校 補助로 이루어 졌다. 會費는 歲入 部門에서 比重이 제일 커서 1973年度에 73.4%에서 1977年度에 46.3%까지 차지하고 있다. 近年일수록 絶對 額數는 커지게 되어 1973年度의 553萬원에서 1977 年度에 1,833萬원으로 3倍以上으로 커졌으나 그 比重이 떨어지게 된 理由는 學校 補助가 크게 增額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게다가 前年度에서 移越된 金額과 其他 收入이 많아 졌음에도 그 理由를 찾아볼 수 있겠다. 표2에서 會費 納付 現況을 보면 會費를 낸 會員은 1973年度에 年 27,651名에서 1977年度의 29,472名으로 約 10% 정도의 增加率을 보이고 있다. 이표

에서 共濟會에 加入한 會員 數를 計算해 보면 대략 2,400名 정도임을 알 수 있다. 會費 總額은 會費가 引上된 1974年度와 1976年度에 前年度에 비해 急激하게 增加하였다.

學校 補助도 歲入에서 상당히 重要한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며, 共濟會의 運營에 크게 寄与함을 볼 수 있다. 이는 1975年度の 300萬원이 學校補助 일때 그 비중이 19.1%이던 것이 學校補助額이 1,000萬원이었던 1976年度와 1977年度에는 會費로 거두어 드린 歲入이 늘어남에도 그 비중이 35.1%와 25.2%를 占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여기서 會費 總額보다 給与 總額이 1976年度를 除外하면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學校 補助의 必要性이 절실히 느껴진다. 즉 學校 補助가 없다면 共濟會의 運營이 극히 힘들 것이라는 점을 잘 알 수 있다.

歲入 部門 中에서 會費와 學校 補助外에 근래 크게 增加한 것으로는 積立金의 增額으로 늘어나게 된 利子 收入等の 其他 收入을 들 수 있겠다. 1977年度엔 前年度에 比較하여 額數로 約 3.5倍의 增加를 보인 其他 收入은 앞으로 積立金의 增額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다음으로 歲出 部門을 보면 그 内訳으로는 主로 給与와 事務費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最近 1976年度와 1977年度에 新設되어 比較的 큰 比重을 차지하게 된 積立金도 포함되어 있다.

歲出 部門 中 比重이 가장 큰 給与部門을 보면 1973年度에 867萬원(1973年度 未支給分 包含)에서 1977年度엔 2,607萬원으로 대략 3倍정도의 增加를 보였다. 그러나 그 비중이 91%(1973年度 未支給分 包含)에서 69.4%로 낮아진 理由로는 積立金의 比重이 커짐에 따라서 나타난 結果로 分析된다. 표3에서 給与 金額別 件數의 內容을 보면 1973年度에 給与 金額이 5,000원 以下인 경우가 64.1%이던 것이 1977年度엔 38.3%로 急激히 減少하였으나, 1萬원 以上 給与된 경우는 1973年度에 20.8%, 1974年度에 32.4%, 1975年度에 41.8% 1976年度에 31.7%, 그리고 1977年度에 46.7%로 점차 增加하는 傾向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여기서 고려해야 될 點은 年度마다 支給 限度額이 다르다는 點 즉 近年일수록 그 限度額이 높아져 왔다는 點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큰 理由로는 그만큼 醫療費가 急激히 上昇하게 된 背景을 생각해야 될 것이다. 特히 1977年度엔 10萬원 以上 支給된 경우가 全体 給与 件數 中 5.2%를 占有하게 된 것은 이와 같은 傾向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런 傾向은 표4에서도 볼 수 있다. 즉 給与 件數도 해마다 增加되었지만 件當 平均 給与率도 增加하여 1973年度の 9,370원에서 1977年度の 22,376원으로 대략 2.5倍의 增加를 보였다.

다음 歲出 部門 中 事務費 項目을 표1에서 보면 1973年度에 86萬원에서 1977年度엔 252萬원으로 5年間 約 2.9倍의 增加를 보였다. 이를 給与 項目과

〈표1〉 년도별 세출입 현황

단위: 원(%)

내역	년도	1973	1974	1975	1976	1977
세입총액		7,534,225(100)	12,688,546(100)	15,791,44(100)	28,454,461(100)	39,614,969(100)
B. 공제회비		5,530,200(73.4)	9,322,600(73.5)	10,896,900(69.0)	15,864,800(55.8)	18,331,200(46.3)
학교보조		2,000,000(26.5)	3,000,000(23.6)	3,000,000(19.0)	10,000,000(35.1)	10,000,000(25.2)
전년도이월금		2,163(0.0)	330,974(2.6)	1,628,169(10.3)	2,052,631(7.2)	9,412,871(23.8)
기타수입		1,862(0.0)	34,972(0.3)	266,372(1.7)	537,030(1.9)	1,870,898(4.7)
세출총액		7,203,251(100)	11,060,377(100)	13,738,810(100)	19,041,590(100)	37,601,319(100)
A. 공제급여		6,343,656(88.1)	10,407,824(90.8)	12,169,020(88.6)	14,567,165(76.5)	26,078,310(69.4)
사무비		859,595(11.9)	1,012,553(9.2)	1,569,790(11.4)	2,474,425(13.0)	2,523,009(6.7)
적립금		0	0	0	2,000,000(10.5)	9,000,000(23.9)
잔액		330,974	1,628,169	2,052,631	9,412,871	2,013,650
A/B		1.15	1.08	1.12	0.92	1.42

※ 73년도 미지급분 2,344,664원 포함됨.

比較해 보면 그 增加率이 낮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事務費 對 給与額의 比를 보면 1973年度에 0.10, 1974年度에 0.13, 1975年度에 0.13, 1976年度에 0.17, 그리고 1977年度에 0.10으로 나타나 事務費는 대략 給与額의 1/1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976年度에 事務費의 支出이 急增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1976年度와 1977年度에는 各各 200만원 및 900만원을 積立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래서 積立金은 1,100만원에 달하여 여기에 생겨나는 利子등의 其他 收入이 增加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積立金 運用의 經濟性 여부에 따라 其他 收入이 增減을 가전을 수 있다.

끝으로 會費 納付 額數에 對한 給与額數의 比를 보면 1976年度를 除外하고는 모두 1以上임을 볼 수 있다. 이것은 會員들은 자기가 負擔하는 것보다 더 많은 惠沢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1977年度엔 그 比가 1.42에 달하여 會費 負擔보다 1.4배의 給与 惠沢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표Ⅱ〉 년도별 공제회비 납부상황

년도	회비납부자수	월회비(원)	계(원)
'73	27,651	200	5,530,200
	년총액		5,530,200
'74	8,667	500	4,333,500
	12,055	300	3,616,500
	6,863	200	1,372,600
	년총액		9,322,600
'75	11,814	500	5,907,000
	16,633	300	4,989,900
	년총액		10,896,900
'76	8,720	800	6,976,000
	15,398	500	7,699,000
	3,966	300	1,189,800
	년총액		15,864,800
'77	11,984	800	9,587,200
	17,488	500	8,744,000
	년총액		18,331,200

〈표Ⅲ〉 급여금액별 공제급여 건수

단위: 건(%)

금액(원) \ 년도	'73	'74	'75	'76	'77
0~ 1,000	63 (9.3)	47 (5.6)	27 (2.9)	51 (5.2)	44 (3.8)
1,001~ 5,000	371 (54.8)	368 (44.1)	215 (22.9)	318 (32.5)	284 (24.5)
5,001~ 10,000	102 (15.1)	146 (17.5)	304 (32.4)	298 (30.5)	290 (25.0)
10,001~ 50,000	123 (18.2)	237 (28.4)	368 (39.2)	250 (25.6)	417 (35.9)
50,001~100,000	16 (22.4)	36 (4.4)	25 (2.6)	48 (4.9)	65 (5.6)
100,001~150,000	2 (0.2)	0	0	9 (0.9)	38 (3.3)
150,001~200,000	0	0	0	3 (0.3)	10 (0.9)
200,001~300,000	0	0	0	0	13 (1.0)
계	677 (100)	834 (100)	939 (100)	977 (100)	1,161 (100)

〈표Ⅳ〉 년도별 공제급여 현황

년도 \ 구분	급여건수	총급여금액(원)	건당평균급여액(원)	년도 \ 구분	급여건수	총급여금액(원)	건당평균급여액(원)
'68	289	1,796,800	6,217	'73	677	6,343,656	9,370
'69	327	2,377,842	7,270	'74	※ 834	※10,047,824	12,048
'70	324	3,190,547	9,847	'75	939	12,169,020	12,959
'71	379	3,722,202	9,821	'76	977	14,567,165	14,910
'72	529	6,579,797	12,438	'77	1,161	26,078,310	22,376

※ 73년도 미지급분 81건 2,344,664원포함

3. 診療 実績

표 4 에서 過去 10年 동안의 診療 実績을 볼 수 있는데, 總 6,500名에 달하는 敎職員 및 그 家族들이 診療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給與된 金額도 8,700 萬원에 육박하였다. 이 중에서도 最近 5年 동안에는 總 4,588名의 敎職員 및 그 直系家族들이 惠沢을 받았고, 이들이 給與받은 額數도 6,920萬원에 달하였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近來들어 서면서 医療共濟會의 利用이 急激하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惠沢을 받은 對象을 표 5 에서 보면 全體的으로 家族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最近일 수록 本人의 利用이 늘어나고 있는 反面 家族이 利用하는 경우는 그렇게 크게 增加하지 않고 있다. 通院 治療를 받은 경우에서 特別히 本人이 家族의 경우보다 더욱 많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入院 治療의 경우에는 家族인 경우가 本人보다 여전히 많음을 보여준다.

이번에는 診療를 받은 科別로 分布 樣相을 표 6 에서 보면 內科 診療를 받은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年間 1,719名이 內科 診療를 받았으며, 이는 診療를 받은 사람 全體的 37.5%를 차지하였다. 最近일수록 內科 診療를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을 볼 수 있으며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으로 予測된다. 그다음으로는 齒科로 5年間 958名이 診療를 받았으며 이는 全體的 20.9%를 차지하였으나, 最近일 수록 診療받는 사람이 많아지질 못하여 그 比重은 점차 떨어지는 傾向이다. 세번째로는 外科로서 610名이 診療를 받아 13.3% 차지하였고 診療받는 사람의 數는 꾸준히 增加하여 5年間 비교적 비슷한 比重을 보여주고 있다. 그외에는 10%以下로 婦人科, 耳鼻咽喉科, 小兒科 및 皮膚科의 順으로 되어 있다. 이 중에 小兒科의 경우는 最近 診療를 받는 사람의 數 自体가 減少하는 傾向을 보이며 앞으로 더욱 줄어들 것으로 予測된다. 全般的으로 모든 科에서 診療받는 사람數가 增加하는 樣相을 보여준다.

그러면 표 7 에서 診療科別로 支給된 給與額의 平均 (표 V) 급여대상별 공제급여건수

대상 년도	본 인			가 족			총계
	입원	통원	소계	입원	통계	소계	
'73	33	250	283	103	291	394	677
'74	102	270	372	128	334	462	834
'75	37	401	438	61	440	501	939
'76	59	448	507	126	344	470	977
'77	65	517	582	146	433	579	1,161
'계	296	1,886	2,182	564	1,842	2,406	4,588

(표 VI) 진료과별 공제급여건수 현황

과	년도	'73 (%)	'74 (%)	'75 (%)	'76 (%)	'77 (%)	계 (%)
내		208 (30.7)	254 (30.5)	339 (36.1)	404 (41.4)	514 (44.3)	1,771 (37.5)
외		65 (9.6)	141 (16.9)	96 (10.2)	147 (15.1)	161 (13.9)	661 (13.3)
치		163 (24.1)	182 (21.8)	239 (25.5)	163 (16.7)	211 (18.2)	995 (20.9)
부 인		60 (8.9)	57 (6.8)	68 (7.2)	59 (6.0)	78 (6.7)	332 (7.0)
비 노 기		24 (3.5)	17 (2.0)	18 (1.9)	22 (2.3)	15 (1.3)	96 (2.1)
소 아		54 (8.0)	45 (5.4)	66 (7.0)	56 (5.7)	27 (2.3)	248 (5.4)
신 경		19 (2.8)	8 (1.0)	1 (0.1)	8 (0.8)	25 (2.2)	61 (1.3)
안		20 (3.0)	19 (2.3)	14 (1.5)	17 (1.7)	16 (1.4)	86 (1.9)
이 비 인 후		42 (6.2)	58 (7.0)	68 (7.2)	61 (6.2)	53 (4.6)	282 (6.1)
피 부		22 (3.2)	53 (6.3)	30 (3.3)	38 (3.9)	56 (4.8)	199 (4.3)
정 신		0	0	0	2 (0.2)	5 (0.3)	7 (0.2)
계		677 (100)	834 (100)	939 (100)	977 (100)	1,161 (100)	4,588 (100)

〈표Ⅶ〉 진료과별 공제급여 평균지급액 현황

단위: 원

과	년도	'73	'74	'75	'76	'77	과별평균
내		10,259	14,200	15,625	17,916	20,766	16,841
외		16,158	21,454	21,098	21,645	48,494	28,016
치		4,295	3,824	6,002	8,007	10,398	6,607
부	인	15,785	15,483	15,746	14,737	29,313	18,808
비	뇨 기	10,276	20,732	23,083	5,548	36,649	17,566
소	아	5,206	3,837	6,020	6,159	6,276	5,506
신	경	10,523	9,240	1,420	11,262	17,529	13,173
안		19,220	13,004	17,084	14,399	14,143	15,602
이	비 인 후	8,245	13,354	16,762	16,607	18,985	15,177
피	부	2,452	4,091	4,942	3,639	7,013	4,774
정	신	-	-	-	9,785	66,862	50,554
년도별평균		11,462	12,048	12,959	14,910	22,376	15,084

均額을 比較해보면 모든 科에서 增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5年間の 科別 平均을 보면 精神科가 가장 높은 5萬원 線으로 나타났다. 아마도 이런 結果는 対象數가 극히 적은데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도 看做할 수 있다. 그러면 外科가 가장 높은 28,016원인데 응는 外科 診療가 手術과 密接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다음으로는 婦人科, 泌尿器科 그리고 内科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다. 反面에 平均額이 낮은 科로는 皮膚科, 小兒科 및 齒科의 順으로 되어 있다. 이와같이 平均 給與額에서 差異가 나타나고 있는 理由로는 그科的 診療가 入院 治療와 通院 治療中에서 어느 쪽이 더 큰 比重을 차지하는 가에 있다. 더불어 診療 自体의 어려움이나 患者 狀態의 危重도와도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다. 年度別 平均을 보면 1973年度에 비해 1977年度에 2倍정도 增加하는데 反해 外科의 경우에는 3倍로 增加하였는데 이는 그만큼 医療施設이 高級化되고, 보다 精密한 最新의 施設을 利用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小兒科의 경우에는 1.2倍 정도만이 增加됨을 보여주는데 이는 大部分의 患者가 通院治療로 간단한 処方만으로도 治療가 可能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4. 結 論

서울대학교 教職員 醫療共濟會는 職員醫療 保險組合으로 發足한 以來 10年동안 約 6,500名에게 給與를 주었으며, 그 金額은 무려 8,700萬원에 달하였다. 最近일수록 이를 利用하는 사람이 더욱 增加하였고 그만큼 給與額도 커지게 되었음을 볼 수 있었으며 앞으로 더욱 利用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임을 予測할 수 있었다. 그에 따라 醫療共濟會의 運營規模도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다. 이와같이 規模가 龐大하게 될 共濟會의 運營 方向을 지금까지 分析했던 資料들을 中心으로 提示해 보고자 한다.

우선 歲入 部門中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會費 項目을 보면 그比重이 점차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給與額만도 會費로 因한 歲入보다 많았으며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으로 予測된다. 그래서 現會費만으로 共濟會를 運營한다는 것은 不可能한 것으로 생각되며 그만큼 學校 補助가 必要할 것이다. 실상 다른 職場의 第1種 醫療保險組合을 보면 保險料의 半을 使用者가 負擔하고 있다. 이런 點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要求될 給與額도 急增할것임에 비추어 學校 補助가 最少限 會費로 困한 歲入만큼 되어야 하겠다.

그다음은 積立金의 運用을 보면 보다 收益性이 높은 投資 方法을 찾아서 收入을 많도록 해야 되겠으며 또한 積立金도 增額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가지로는 共濟會의 利用에 關한 問題로 最近 점차 利用率이 높아짐은 사실이나 모든 會員들이 쉽게 利用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다. 즉 會員이나 會員 家族들이 必要한 경우에 보다 쉽게 利用할 수 있도록 여러 地域에 指定 病院을 둔다든가 또는 共濟 給與申請이 쉽게 될 수 있도록 節次를 간편하게 할 必要가 있다. 더불어 支給限度額도 더욱 높여 會員들에게 보다 많은 惠沢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또한 近來 家族이 利用하는 경우가 本人의 경우보다 적어지고 있는데 이는 家族에 對한 共濟 給與의 比率이 적기 때문에 그 利用이 줄어들는 것으

로 생각되는 바 共濟 給與率을 좀더 높여 會員들에게 보다 많은 惠沢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参 考 文 獻

- (1) 朴世沢：医療保險 實施以後의 病院經營에 關한 考察, 서울대학교 保健大学院, 1978.
- (2) 金仁達, 金永彦, 金圭現, 許程：医療酬価 基準策定에 關한 研究, 서울대학교 保健大学院, 1968 ~1971.
- (3) 江間時彦訳：醫師의 報酬, 470 : 1965.
- (4) Williams A. Glaser : Paying the Doctor, The John's Hopkins Press, Baltimore and London, 1970.